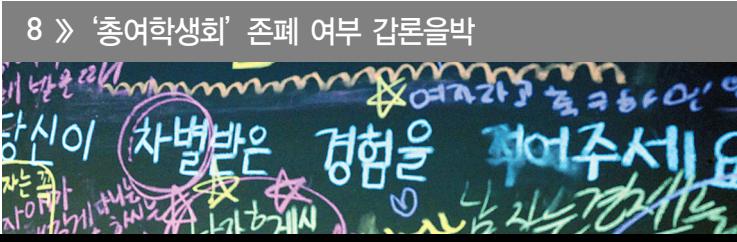




4 »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 “청운관 에너지 자립건물로!”



8 » ‘총여학생회’ 존폐 여부 갑론을박

학사다이어리 – 예비 졸업사정 및 졸업대상자 확인

- 예비 졸업사정 기간 : 10.1(수) ~ 10.8(수)
- 예비 졸업사정 최종 결과 확인 : 10.16(목) ~
- 확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내 [수입/성적/상담] - [졸업/전공] - [졸업정보조회] - '수강내역포함 졸업진단표 생성' - '졸업진단표 보기'로 확인
- 유의사항 : 졸업대상자는 '졸업논문'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해야 함 (기 이수자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 제외)



‘대학다운 대학’ 그 미래를 그리다

서울캠퍼스 가을대동제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열렸다. ‘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가을대동제 기간 동안 총학생회(총학)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나무숲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방이사, 공간문제,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 26일 경희 미래위원회 출범식 2부 행사였던 ‘경희 65주년, 미래의 회상’에서 조인원 총장에게 총학 박이랑(사학 2008) 회장이 대나무숲 프로젝트 결과를 담은 ‘총학 미래리포트’를 전달했다. ▶관련기사 5면

‘High KHlass’, 진짜 격이 달랐다

대동제 뒷정리 점검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지난 25일 새벽, 학교로 서둘러 향했다. 후문인근에 도착했을 때 가 오전 6시 5분, 청소노동자들은 벌써 단과대학 내부 청소를 시작 했다. 등굣길에 만난 A 청소노동자는 “오전 7시부터 일하는 시간 이지만, 평소에도 규모가 큰 단과대학은 6시 30분이면 청소를 시작 한다”며 “축제기간이고 그러면, 적어도 6시부터 청소하겠지…”라고 말했다.

후문에서부터 동의마당-노천극장-청운관-임간교실 순으로 뒷정리 상태를 확인했다. 점검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청소노동자가 당부한 ▲쓰레기 모아놓기 ▲깨진 병 등 분리수거 잘하기 ▲화장실

24일~26일 서울캠 주점 부스 구역 뒷정리 점검 내용

날짜	쓰레기 모아놓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화장실 청결 이용	담배꽁초 등 주변정리
24일	O	△	X	O
동의마당	O	△	O	O
노천극장	O	△	X	△
청운관 앞	△	△	O	O
임간교실 미로나에길	O	O	O	O
날짜	쓰레기 모아놓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화장실 청결 이용	담배꽁초 등 주변정리
25일	O	O	X	O
동의마당	O	O	△	O
노천극장	O	O	O	O
청운관 앞	O	O	O	O
임간교실 미로나에길	O	O	O	O
날짜	쓰레기 모아놓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화장실 청결 이용	담배꽁초 등 주변정리
26일	O	O	O	O
동의마당	O	△	X	△
노천극장	O	△	O	X
청운관 앞	△	△	O	X
임간교실 미로나에길	O	O	O	△

※ O=우수, △=보통, X=미흡

정결 사용 ▲과음으로 인한 구토 주의 ▲담배와 가래침 흡연장에 하기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했다. 단과대학 내부는 대체로 청

소를 시작한 상태인 만큼, 청소노동자의 의견을 들었다. 동의마당은 전반적으로 쓰레기 모아놓기나 분리수가 양호했다.

다만 쓰레기봉투를 둑어두지 않아 새벽 사이 쓰레기가 바람에 많이 흩어졌다. 한의과대학 B 청소노동자는 “그래도 예년 축제보다 훨씬 좋아! 새벽에 뒷정리하느라 고생들 많았겠네”라면서도 “화장실 세 면대만 조금 더 청결하게 이용해줬으면 좋겠어. 단무지나 이런 것들이 끼어서 막혀버렸어”라고 말했다. 정경대와 경영대에서 만난 청소노동자들 역시 “잘 해놨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 먼지는 많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전했다.

노천극장 주변의 경우, 문·이 과대학 앞은 정리정돈이 잘돼있었지만, 노천극장 내 스탠드는 분리수거 등이 미흡했다. 전날 대동제 개막식과 응원제 등이 진행된 탓이다.

▶3면으로 이어짐

인력을 발휘하였는가?
루소는 38세에 디종 아카데미 현상공모에 논문 〈학문과 예술론〉(1750)이 당선되었다. 그는 수상 소식을 듣는 순간 새로운 정신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체험하였다. 루소는 사회적 영달을 누리려는 희망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 지위와 사교계의 화려한 생활로부터 떠나는 ‘외적 개혁’ 및 도덕적 정신세계에로의 전향인 ‘사상개혁’을 단행한다. 그 결과 〈에밀〉이 탄생했다.

루소는 선과 악이라는 서로 극 단으로 대립되는 가치 잣대들을 만들며 들이대고서 인간이 만든 사회제도 및 문명 전체를 단죄한다. 그는 이기심으로 주조된 사회제도를 통하여 형성된 인간자아를

정신적 ‘불구’라고 규정한다. 그에게 이상적인 인간은 자연인이며 교육의 모토는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는 것처럼 교육하기’이다.

루소의 ‘자연인’ 교육론은 루소 당시까지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시킨 사상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의 하나였다. 〈에밀〉이 발표되자 루소는 고발되고 그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졌다. 루소는 박해와 불행의 폭풍에 휘말리어 8년 동안 유럽 각지를 떠돌아다니게 된다.

▶7면으로 이어짐

정상인이나 불구자나 : 장 자끄 루소, 〈에밀〉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⑩

김인석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프랑스 국민은 프랑스혁명 기간 동안 장 자끄 루소(1712-1778)의 『에밀』(1762)에 빠져들었다. 『에밀』은 당시 베스트셀러였다.

『에밀』은 ‘에밀’이라는 허구의 남자 주인공이 이상적인 교육자를 통하여 이상적 인간으로서 성장되는 과정을 표현한, 소설형식의 교육사상론이자 인간론이며 문명비평론이다. 『에밀』의 어떤 면이 흡



‘에밀’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본 교육사상론 · 인간론 · 문명비평론이다.

정신적 ‘불구’라고 규정한다. 그에게 이상적인 인간은 자연인이며 교육의 모토는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는 것처럼 교육하기’이다.

루소의 ‘자연인’ 교육론은 루소 당시까지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시킨 사상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의 하나였다. 〈에밀〉이 발표되자 루소는 고발되고 그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졌다. 루소는 박해와 불행의 폭풍에 휘말리어 8년 동안 유럽 각지를 떠돌아다니게 된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다음 제1577호는 10월 13일에 발행됩니다
대학주보 온라인 기사는 계속 연재됩니다
media.khu.ac.kr/khunews

대학 특성화사업 칼럼 연재

시공간 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사업
황철수(지리학) 단장의
‘시공간 빅 데이터의 이해’



▶ 6면



▶ 1면에서 이어짐

중앙대자보관 앞은 동의마당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모아놨지만 끓어놓지는 않아서 바람에 많이 흩어져있었다.

가장 아쉬웠던 구역은 청운관 주변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이유겠지만, 다른 구역에 비해 쓰레기 정리가 아쉬웠다. 특히 청운관 정문(좌측 문)보다 우측 문 앞 쓰레기통 주변이 뒷정리가 부족했다. 화장실 역시 구토나 음식물 쓰레기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아침운동을 나온 인근 주민은 “보기 안 좋다”고 말했다.

반대로 가장 잘 정리가 돼있었던 곳은 입간교실과 운실 사이의 주차장 구역이었다.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뤄졌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까지 따로 봉지에 담아뒀다. 깨진 술병을 바가지 등에 분리해 정리해둔 부분도 눈에 띄었다. 설문조사에서 청소노동자들이 깨진 술병을 그대로 봉지에 담아 곤란할 때가 있다고 말한 바 있었는데, 이를 잘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주점을 운영한 아동가족학과 ‘Present’ 학생회는 “다른 주점보다 빠르게 오전 1시에 주점운영을 마쳤다”며 “이후에 남은 사람들끼리 함께, 1시간 30분 정도 주변을 정리했다”고 답했다.

주점 운영단체 모두 뒷정리 ‘열심’ 안전수칙·이용자 서명 효과 거둬

몇 가지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주점을 운영한 단체 모두 뒷정리에 신경 썼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점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주점을 위한 3가지 약속’에 서명 받는 등의 활동이 효과를 거둔 셈이다. 지난 26 일에는 뒷정리와 분리수거가 전날보다 더 우수했다. 전날 가장 아쉬운 구역으로

〈청소노동자가 전하는 평상시 당부사항〉

1. 책상에 낙서하지 말아주세요!
2. 책상 위나 서랍에 쓰레기 넣지 말아주세요!
3. 화장실 이용시 이물질로 변기, 세면대를 막지 말아주세요!
4. 쓰레기통에 컵라면, 캔 등을 버릴 때는 ‘물’ 없이 버려주세요!

꼽혔던 청운관 앞 역시 쓰레기를 모아놓고 분리수거까지 철저하게 진행했다. 뒷정리상태를 점검하며 마주치는 청소노동자 대부분은 “정말 잘 정리해둔다”며 배려해주는 학생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열심히 정리를 하려다가 오히려 이를 어렵게 만드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영대 로비에 분리수거된 쓰레기 봉투를 모아둔 것이다. 전날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아예 실내로 옮긴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트럭을 이용해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번거로워졌다. 경영대 C 청소노동자는 “봉투 한 번 들어봐. 병으로 꽂 차서 꿈쩍도 안해. 이걸 왜 안으로 옮겨와서…”라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3시, 서경지부 경희대분회 회원들이 참석한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장’을 찾았다. 이틀간의 뒷정리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물었다. 이런저런 아쉬운 점 중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따로 있었다. 화장실 청소용 수세미나 바가지가 없어졌는데, 그것으로 ‘식기’를 뒀다는 것이다. 주변에서는 “그래서 미리 숨겨둬야 돼”, “아예 못 찾게해서 못쓰게 해야지”라는 말이 이어졌다.

이런 저런 불만을 이야기하던 청소노동자들은 “이전 축제보다는 깨끗했나?”라는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그럼!”, “쓰레기만 잘 모아둬도 도움이 되지”라고 말

했다. 질문을 마치고 떠나려는 순간에도, “아쉬운 점만 말한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정말 감사해”라고 말을 건넸다.

대동제가 끝나고 다음날, 27일은 폐막식에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인지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모아놓고 분리수거를 했지만, 각 개인이 버린 작은 쓰레기들이 곳곳에 흩어져있었다.

청소노동자, “정말 감사해” 뒷정리 문화 앞으로도 이어지길

특히 이날 성악, 무용 등의 실기우수자 전형 수시시험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만큼 청소노동자의 움직임은 오전 6시부터 분주했다. 유종의 미가 아쉬웠다.

‘격이 다른 축제’를 외친 이번 서울캠퍼스 가을 대동제는 끝났지만 오늘도 청소노동자의 노동은 이어진다. 청소노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상시 개선했으면 하는 것은, 단연 강의실 쓰레기 문제다. 쓰레기를 책상 위나 책상서랍에 넣지만 않아도 건물마다 청소시간이 30분 단축된다고 한다. 오전 7시 출근임에도, 매일 30분 일찍 나왔던 청소노동자에게 ‘정시출근’의 요건인 셈이다. 높아진 대동제 뒷정리의 격이 강의실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 1면에서 이어짐

수많은 학생의 사랑을 받는 나비. 요즘 나비는 부쩍 오른 인기에 힘입어 활동 무대를 기숙사 내부까지 넓히려고 시도 중이다. 하지만 인기가 높아지면 ‘안티’가 생기는 법일까. 이런 나비의 기숙사 안 출입은 ‘꼴짓거리’가 되고 있다.

체육부 기숙사 사무실 A 직원은 “자고 있는 방에 불쑥 들어와 선수들이 놀라기도 한다”고 전했다. 제2기 숙사 여학생동 경비원은 “나비가 건물 안까지 들어오려고 해서 막고 있

다”라며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위생문제나 텔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나비가 어디서나 환영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닌 만큼, 언제까지 ‘아이들’로 사랑받을지는 불분명하다. 그 성격을 생각해보면 사랑을 찾으려, 혹은 고급 소시지가 질려서 도도록 떠나버릴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이야기. 나비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오늘도 제 2기숙사 앞에 누워있다. 여유롭게 헛빛을 즐기며.

‘대학 ‘간판’ 만 남기는 대학평가 거부’

총학, 대학평가 거부선언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서울】 우리학교 종학생회(총학)을 비롯한 동국대, 성공회대, 한양대 등 4개 대학 종학도 “언론사 대학평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중앙일보사 앞에서 ‘언론사 대학평가, 함께 거부하고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을 발표한 4개 대학 종학은 대학이 특성과 현황에 따라 고유한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높은 점수를 쳐주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소위 ‘SKY’라 불리는 한국사회의 학벌카르텔을 깨뜨리는 데

에 언론사 대학평가가 기여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들은 “20년 동안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진행되면서, 학벌카르텔은 공고해졌고, 대학의 특성화된 전공 대신 간판만 남았다”며 “대학의 본질”을 지키겠다고 나선 고려대 총

학의 선언을 지지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 발표 이전인 지난 22일 고려대 종학이 중앙일보 대학평가 거부운동을 시작한 뒤로, 서울대와 연세대의 종학도 동참의사를 밝힌 바 있어 대학 평가 거부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대학평가’ 거부에서, ‘전체 언론사’, ‘정부의 대학평가’까지 평가 거부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총학 박이랑(사학 2008) 회장은 “실질적인 교육의 질이나 학문 가치와 모순되는 대학평가를 거부한다”며 “중앙일보 대학평가뿐만 아니라 대학평가 자체에 대한 반대다. 대학의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9일부터 각 대학에서 ‘언론사 대학평가 거부 대학생 릴레이선언’을 통해 대학평가에 대한 학생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며, 다음달 11일 한양대에서 ‘누구를 위하여 대학은 줄 서는가’ 교육포럼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

- 일 시 : 2014. 10. 1(수) 19:00
- 장 소 : 경희대학교 법학관 301호
- 주요내용
 - 2015학년도 입학전형계획 안내
 - 2014학년도 입시결과 설명
 - 질의응답
- 문 의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02-961-9218~9,
lawschool@khu.ac.kr,
<http://www.khls.ac.kr>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elf Design 프로그램 모집 공고

스스로 필요한 활동을 디자인하고 활동비를 지원 받자~!!!

입학처에서 개인별 맞춤형 활동 지원을 통해 역량개발을 최대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Self Design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지원자격 : 본교 국제캠퍼스 소속 재학생
※ 신입생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함.
※ 휴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 활동 기간 : 2014학년도 1~2학기 동안 수행했거나, 수행할 예정인 프로그램
- 2. 활동 내용 : 개인이 인성발달, 자기계발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동
예) 재능기부봉사, 지역사회와 연관된 활동, 각종 프로젝트, 자격증 준비, 문화체험 등.
※ 단순한 공인여행증에 성적취득을 위한 활동은 지양함(수강료, 시험응시료 등).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20만원(총 25여명 지원 예정)
※ 결과보고서 제출(2015.01.19~25)한 자에 한하며, 활동영수증은 반드시 첨부함.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khwao@khu.ac.kr)
※ 본교 입학정보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4. 09. 29(월) ~ 2014. 10. 10(금)

▶ 문의사항 : 국제캠퍼스 입학처(031-201-3300, 정윤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교 커뮤니티 공지사항 또는 입학정보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4-2학기
매그놀리아 인증제 학생대상 실현회
일자 : 2014.9.30(화) 시간 : 15:30~17:00
장소 : 서울캠퍼스 종묘도서관 시정각실

인증 요건

문화인, 세계인, 청조인 3개 영역으로 구분된 비교과 과정에 대해 영역별 최소 인증점수(500점)를 달성하고 total 2,000점 이상 달성 시 인증!!

특전

- 지속적인 개인역량 관리
- 매그놀리아 인증제 인증서 발급
- 매그놀리아 인증제 학생활동 지원비 지급
- 인증내선확인서 발급

영역별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학점인정 프로그램 제외)

문화인	세계인	청조인
• 글로벌 역량 강화, 외국어 능력, 문화인 의사소통 능력	• 어학 성적 -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 스펠링, 음악, 춤, 미술, 체육, 청중 • 학술 활동 - 학술 토론회, 학술 세미나, 학술 발표회 • 해외 활동 및 인턴	• 청자적 사회인 취업역량 풍사, - 출판, 출판 기획, 출판 기획 • 국내외 대회·인턴·봉사 • 어학 외 자격증 • 경영학회 수상 • 학술 활동 • 해외 활동 및 인턴

매그놀리아 인증제 담당부서 안내

취업진로지원처

- 홈페이지 : <http://job1.khu.ac.kr>(서울), <http://career.khu.ac.kr>(국제)
- 전화문의 : 02)961-0167~8(서울), 031)201-3066~9(국제)
- 방문문의 : 청운관 1층(서울), 학생회관 1층(국제)
- 메일문의 : magace@khu.ac.kr
- 상담문의 : 종합정보시스템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

보도

“원전, 하청 노동자의 고통으로 유지”

원전 탐사보도 히구치 켄지 강연

이재은 기자 jenny95@knu.ac.kr

【서울】 ‘포스트 후쿠시마, 사진으로 보는 핵발전 노동자의 삶’ 특별강연회가 지난 24일 청운관에서 열렸다. 약 150여 명의 원자력발전소(원전) 피폭노동자를 사진으로 담아온 사진작가 히구치 켄지가 강단에 올랐다.

1960년대부터 공해 산업재해, 환경오염, 원자력발전소 피폭노동 등의 문제를 탐사보도해온 히구치 켄지는, 그동안 자신이 찍은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방사능피폭의 심각성을 설명해나갔다. 특히 가장 아래에서 직접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됐던 하청노동자의 고통과 인권유린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원전은 말단노동자들이 없으면 하루도 가동하지 못한다”며 “고리미드 구조 속에서 임금의 불법착취까지 이어졌다. 약자인 노동자는 병에 걸리면 벌레처럼 버려진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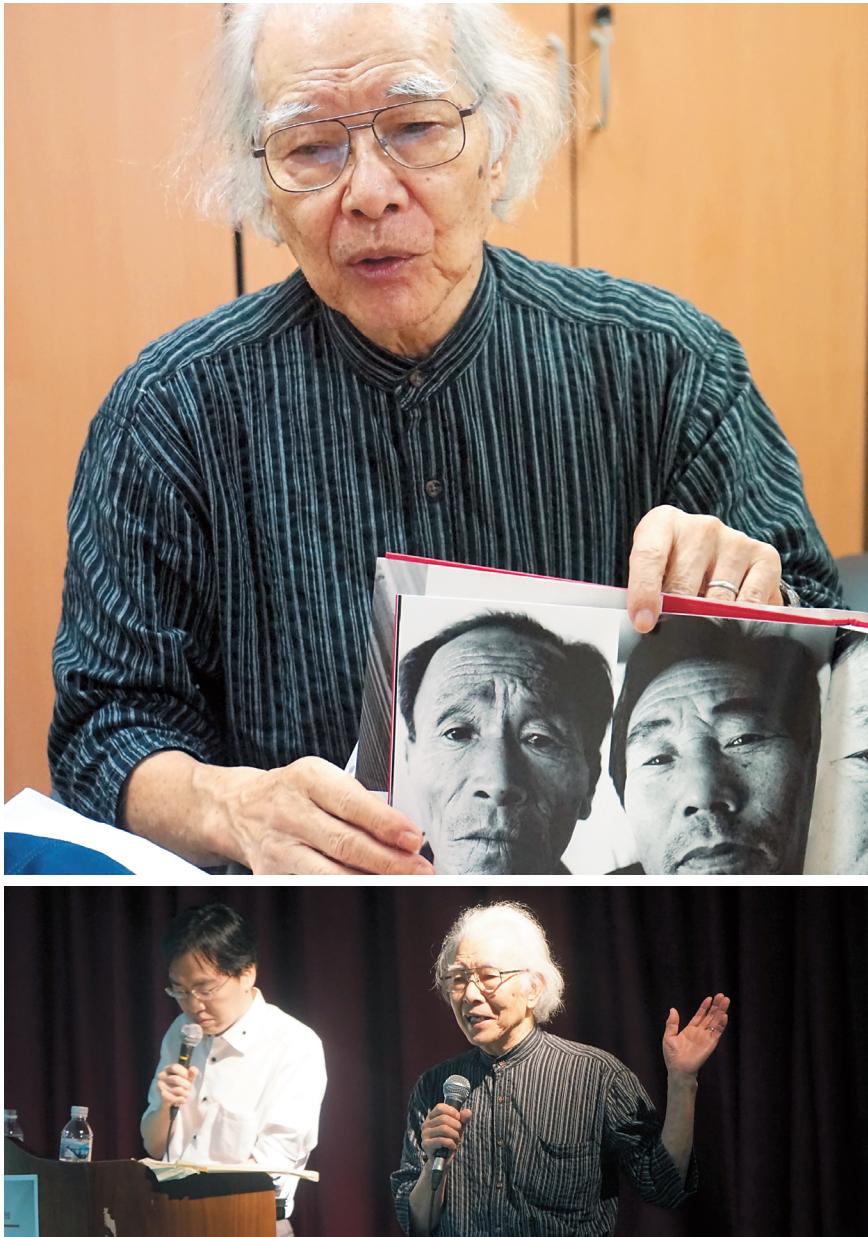
원전 노동자의 고통은 자본 앞에서 외면받았다. 당시 원전1기(100만KW)를 만들면 약 5조에서 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움직였다. 정계와 재계는 물론 학자와 언론까지 1970년대 들어 원전을 “안전하다”, “깨끗하다”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런 선전이 나오는 순간에도 하청노동자는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히구치 켄지는 지난 40년간 피폭 노동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했지만 외면당했다. 돈에 봉괴됐던 저널리즘 정신은 ‘사고’가 난 다음에야 움직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이 붕괴한 지난 2011년 3월 11일 이후에나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언론과 외신 약 70개사가 히구치 켄지에게 취재를 요청했고 TV, 신문, 잡지 등에서 특별취재함으로써 진실이 밝혀지게 됐다. 끝으로 히구치 켄지는 “인간과 원전은 공생할 수 없다. 하루 빨리 진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강연이 끝나고 히구치 켄지와 진행한 일문일답.

Q. 한국에서도 원전문제는 다뤄진다. 하지만 잠시 이슈가 되고 이내 잊혀진다. 여전히 고리원전과 같은 노후원전이 가동 중이다.

우선 노동자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의식해야 한다. 일본 역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노동자들이 원전 문제를 인식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



지난 24일 청운관에서 원전 피폭노동자를 취재한 사진작가 히구치 켄지의 강연이 열렸다

기 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원전의 위험성과 변화를 이야기해야 한다.

Q. 원전 친성론자들은 원전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다. 원전이 다른 발전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일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전이 배출하는 방사능 폐기물과 노동자 피폭문제 등을 생각해보라. 엄청난 시간이 소비되고, 인류가 방사능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원전을 찬성하진 못할 것이다.

일본은 원폭이 투하되기도 했지만, 한국은 그런 경험이 없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2만 5,000명 정도가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했다. 원자력은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데 특히 사람을 죽이는 데

효율적이다. 그런 무서운 물질을 인간이 다뤄서는 안 된다. 인간과 원자력은 공존하기 어렵다.

Q. 대학에 와서 강연을 했다. 원전과 관련한 활동을 ‘대학’ 혹은 ‘대학생’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지구를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원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 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항공료도 안 비싸니까 알바해서 갔다 와보면 좋겠다. 근처까지는 접근할 수 없지만, 황야처럼 변한 현장을 보면 원자력의 무서움을 목격할 수 있다.

청운관 에너지자립건물 만들기 그린캠퍼스로 가는 거점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 눈길

이재은 기자

서울캠퍼스의 2013년 한 달 평균 전력요금은 약 2억 4,400만 원이다. 이는 2012년보다 약 300만 원, 2011년보다 2,400만 원정도 많아진 금액이다. 오히려 전력사용량은 감소추세다. 2013년의 전력사용량은 전년대비 1,000만 kWh가 줄어들었다. 이는 2011년에 예비전력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용을 규제한 이후 1년 동안 전력가격이 2번 인상된 탓이다. 결국 전력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희대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의 활동은 눈에 띈다. 낮설 수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는 지난 1학기부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주관한 ‘에너지절약 실천 시민협력 사업 및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지원 사업’에서 49개 단체 중 하나로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선정됐다.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제안한 ‘그린캠퍼스 캠페인과 에너지 협동조합 만들기 사업’은 선정과 함께 지원받은 2,500만 원으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서강대, 숙명여대, 한양대의 사업이 사업시킨인 오는 11월 30일까지에 맞춰져있는 것과 달리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 김진해 위원장은 “에너지 절약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캠페인이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배경을 밝혔다.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는 지난 4월부터 천연화장품 만들기와 교육, 특강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청운관에 자전거 발전기와 햇빛을 모으는 태양광조리개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들은 주변 환경과 자연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청운관 1층과 2층 복도의 형광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했다. LED전등의 경우 형광등보다 설치 단가는 비싸지만, 더 밝고 에너지 효율을 역시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의 활동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관심’이 문제였다.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낯선 만큼, 사람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현재 추진위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20여 명에 불과하다. ‘협동조합’을 출범시키기에는 부족한 수다. 추진위는 ‘청운관을 에너지 자립 건물로 만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했다.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건물인 만큼, 에너지 문제를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덤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목표가 불분명할 수는 없었다”며 “우리학교 전체를 그린캠퍼스로 만들기 위한 거점으로 청운관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물론 청운관을 에너지 자립건물로 만드는 과정은 녹록치 않다. 우선 건물 전체가 하루동안 사용하는 전기량을 점검하고, 이를 태양광에너지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해봐야 한다. 복도에만 부분적으로 설치한 LED등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과 같은 절전사업도 고민이다. 하지만 첫 목표를 정한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는 ‘함께 한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대학은 기존의 질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곳”이라며 “아무 고민없이 에너지를 쓰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2011~2014 서울캠퍼스 에너지 사용추이〉

	2011	2012	2013	2014. 8
전력요금	26억 4,700만 원	29억 100만 원	29억 3,600만 원	14억 3,200만 원
도시가스요금		22억 4,000만 원	20억 900만 원	6억 6,700만 원
수도요금		5억 4,200만 원	6억 500만 원	3억 3,200만 원

“가을로 가는 음악산책”, 함께 걸을까요?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오는 9월 30일(화) 낮 12시30분 도서관 앞마당에서 제45회 작은음악회 “가을로 가는 음악산책”을 개최합니다.

본교 음악대학 관현악과와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는 편안한 음악산책을 위해 귀에 익은 행진곡, 영화주제곡, 드라마 삽입곡, 한국민요변주곡 등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한국민요변주곡(Variations on a Korean folk song)은 한국의 ‘아리랑’이 외국인에 의해 편곡된 곡으로 우리 것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작은음악회와 더불어 따뜻한 치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난날 걸

음 잡시 멈추고 깊어지는 계절 속으로 음악산책 떠나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안내 *

1. 행사명 : 중앙도서관 제45회 작은음악회 “가을로 가는 음악산책”

2. 일시 : 2014. 9. 30 (화) 낮 12시 30분

3. 장소 : 중앙도서관 앞마당

4. 출연 : • 지휘 : 송호섭 교수(음악대학)

• 연주 : 음악대학 관현악과

5. 프로그램(곡명/작곡가)

• Fanfare for the common Man(보통 사람을 위한 광파레) / Aaron Copland

• Selections from the Sound of music(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 Richard Rodgers

• Variations on a Korean folk song(한국민요변주곡) / John Barnes Chance

• Bugler’s Holiday(나팔수의 휴일) / Leroy Anderson

• On the mall March(행진곡) / Edwin Franko Goldman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담)

행사명	모집부문	일시	장소
아워홈 체용설명회	경영지원 구매, 영업, 연구개발 등	9.29(화) 14:00~16:00	청운관 B117호
매그놀리아 인증제 학생대상 설명회	매그놀리아 인증제	9.30(화) 15:3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SPC그룹 채용설명회	2014 하반기 공채	10.1(수) 15:00~17:00	청운관 B117호
삼성생명 SFP 재용면접	SFP	10.1(수) 10:00~16:00	청운관 1층 상담실
삼성생명 SFP 재용설명회	SFP	10.1(수) 16: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면접회	법학전문대학원 설명회	10.1(수) 19:00~	법학관 301호
세아상역 채용면접	해외영업, 영업지원, 경영지원	10.2(목) 10:00~15:00	청운관 1층 상담실
세아상역 채용설명회	해외영업, 영업지원, 경영지원	10.2(목) 15: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재학생 및 출신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시작 시간 5분전까지 청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더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증명조片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2. 11 취업진로지도 및 출판 컨설팅(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내용 : 지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면접조작법,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전략 등

상담유형	컨설턴트 팀	일시	장소	신청방법
개인상담	분야별 컨설턴트팀 4명	월 ~ 금 (각 컨설턴트별 정상 상담일)	오비스룸 354호~356호 제107호~107호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집단상담	이중구 교수 (취직지원처 금융권, 대기업 상담)	월 18:30~19:30	네오플 103호	[개별이동]
On Line Off Line 상담	한상백 팀장 (취업지원팀)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상 시	On Line (hansb@kn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개별이동] 1) 시내버스 : 30번(청량리/휘경동), 23번 / 1~4번(천호동), 93번(강변역) 2) 전철 : 중앙선 도봉역 4번 출구 버스정류장으로 정류장에서 위의 버스로 환승 3) 개인차량 : 경기도 남양주시 이파동 284-1번지 or 금곡출판장/충일아파트 검색 다. 전화번호 1) 221 연대 : 031-595-8337(교환) 연대동원과 또는 3대동원과 2) 연대동원과 : 031-595-7923 3) 경희대학교 예비군연대본부 : 02-961-0148~9

● 상세 내용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 취업진로지도부 겸사 참여(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 상담 당일 낮 취소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수 프린트해서 지원(필수)

자세한 사항은 취업

교수의회 서울지회 ‘독립’ 의결, 3개 지회 사이 ‘갈등’ 원인 이 의장 “전체교수 의견 반영할 것” … 동 의장 “대의원 임의탈퇴일 뿐”

〈이성근〉

표류하는 교수의회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교수의회 서울지회가 지난 22일 긴급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캠퍼스(서울캠) 교수의회’로 독립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비대위 명의로 전체 교수가 회람했던 총장선출방식(안)을 서울캠 전체 교수가 다시 회람

한 후 서울지회 명의로 법인에 제안하기로 했다. 서울지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서울캠 전체 교수에게 지난 24일 발송했으며, 논의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난 26일까지 수렴했다. 최종적인 의견수렴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지회 이성근(관광학) 의장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교수 숫자가 서울지회만 해도 5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각

지회별로 입장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회도 양 캠퍼스에 별도로 존재하지만, 서로 협력할 사안은 함께 하는 것처럼 운영해 가자는 것이다. 다만 서울캠 전체 교수의 의견을 물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의결내용에 이견이 없을 경우, 서울지회는 오는 10월 중 새 회칙과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11월 중 신임 의장과 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신임 의장과 임원이 선출되

는 대로 ‘현 집행부는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회 긴급대의원회에서 ‘독립’을 의결한 것은 지난 19일 국제·서울·의학지회 의장 3인이 모인 의장단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데서 비롯했다. ▲기존 비대위 해체 후 교수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 ▲비대위 위원장 교체 ▲의장단 공동 사퇴 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 등의 안이 제안됐지만 끝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동석호 의장은 “교수사회가 하나로 뭉쳐도 어려운 시기에

남들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는 교수의회에서,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임의탈퇴’하면 어떻게 하나. 특히 선출직이라면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동 의장은 “교수의회 가입과 탈퇴는 각 개인의 권리”라며 “서울지회 대의원들의 임의탈퇴일 뿐, 서울캠 전체 교수의 탈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교수의회는 29일, 지난 15일 휴정됐던 제3차 전체대의원회를 속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제3차 전체대의원회 안건이었던

▲기존 비대위 해체 후, 교수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비대위 운영하는 안 ▲대의원간 폭언·협박 문제에 대한 징계 ▲총장선출제(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

대학원 발전위원회 출범, “대학원 구조 혁신하겠다”

권오은 기자

대학원 발전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통합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첫 회의에서는 ▲연구중심대학원 ▲학제간 융·복합 ▲학비지원 및 재원마련 방안 ▲진학률과 관련된 학부-대학원 간 간극 축소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이 오고갔다.

대학원 발전위원회는 대학원이 직면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출범한 단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기술 중심학문’으로 인한 인간소외다. 따라서 삶의 가치나 목적과 같은 실존적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대학구조개혁의 배경인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가 그것이다. 대학 입학자가 줄어드는 것은, 향후 대학원 입학 규모도 축소된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2013년 63만 1,835명이었던 대학 학부입학 수요가 2018년 54만 9,890명으로 감소되어 대입정원 55만 9,036명에 약 1만 명 정도 미달하게 될 것이고, 그 5년 뒤인 2023년에는 약 16만 명 정도가 미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대로 대학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학생증원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기준 우리학교 대학원 재적생 수는 3,650명으로 연세대 7,358명, 고려대 5,696명 등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와중에 올해 우리학교의 대학원 진학률은 10.8%로, 예년과 같은 10% 내외 수준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 반대학원 송재룡 원장은 “대학원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대학원 중심의 대학 운영 이야기가 나온 것이 10년 쯤 된다”며 “하지만 학부의 대학원 진학률은 제자리 수준이고, 학·석사 연계과정이나 석·박사 통합과정 모두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대학원 발전위원회를 통해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학원 발전위원회는 크게 통합위원회와 인문·사회과학, 이·공학, 의·간호학, 예술·체육학 등 4개의 계열위원회로 구분돼 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통합위원회에서 회의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대학원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계열별위원회 회의를 함께 운영해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해나간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국내·외 대학원의 운영체계를 분석하는 연구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대학원과 연구기관과 연계한 공동연구도 추진하고

〈2013~2014년 대학원 정량지표 비교〉

기준년도	항목	경희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2013	재적생수(명)	3,650	7,358	5,696	4,509	4,252
2013	중도탈락율(%)	5.7	7.4	5.2	6.1	4.8
2013	외국인유학생 현황(명)	787	546	392	470	436
2013	재학생 1인당 장학금(원)	5,238.4	4,743.7	5,320.0	6,014.6	3,727.7
2014	평균등록금(원)	5,775.5	6,224.9	6,020.9	6,026.7	5,674.0
2014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78.8	85.2	88.1	66.6	70.6
2014	학위취득자수(석사·박사, 명)	643/193	732/367	707/308	679/194	659/228
2014	졸업생취업률(%)	62.3	72.0	67.9	71.6	66.4

하고 내년부터 계열별위원회 회의를 함께 운영해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해나간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국내·외 대학원의 운영체계를 분석하는 연구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대학원과 연구기관과 연계한 공동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대학원 발전위원회는 이제 첫 걸음을 뗐다. 그 성과는 약 1년 6 개월 뒤에 나올 예정이다. 송 원장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거교적 소통체계를 통해 충분히 달성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축제기간임에도 100명 몰려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서울】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에요.”

‘2학년 4반 수현이 엄마’의 한 마디에 지난 25일 호텔관광대학 별관 202호에는 정적이 흘렀다. 중간 중간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의 울음소리만 들렸다.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는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하는 경희인 모임, 경희대 ‘가만히 있으 있으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총학생회가 주최했다. 4명의 유가족이 찾아왔다. 축제기간이지만, 학생 100여 명이 모일 만큼 관심은 뜨거웠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현재까지를 정리한 영상을 시청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현장상황은 물론, 유가족과 많은 시민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이 프로젝터에 담겼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가족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탄식과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다.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잊혀졌던 진도 앞 바다의 기억은, 영상이 상영되는 20분 동안 다시 살아났다.

이후 ‘2학년 4반 수현이 엄마’가 마이크를 들고 담담하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이들을 살릴 계획도 의지도 없는 듯 보였어요. 그런 안일하고 성의 없는 대응에 분통이 터지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모습이 아픈거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구조에 임했다면 아이가 저 세상으로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담담하게 이어지던 문장이 끝나자, 정적은 더 깊어졌다.

유가족들은 ‘사고’ 만큼이나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들을 쟁내기 시작했다. ‘2학년 4반 승목이 아빠’는 “정부에서는 자꾸 변명만 늘어놓고, 언론에서는 우리가 직접 보고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하고 방송했다. 이제는 정부도 언론도 믿



“잊지 마자 04/16”

학생들의 응원이 끝날 때마다 유가족들은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과 언론의 악곡보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만큼 아픔도 컸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보내준 성원과 격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드러냈다. “힘에 부쳐 털썩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보내주는 따뜻한 말 한 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유가족의 이야기가 끝나고 ‘질

‘경이로운 경희’를 위한 출발

경희미래위원회 출범

이진우 기자 urusa93@hanmail.net

구 △진료 △실천 △인프라 5개의 분야로 나눠 성금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행사는 1부 출범식, 2부 ‘경희 65주년, 미래의 회상’을 주제로 한 경희한마당 잔치로, 각각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됐다.

1부 미래위 출범식에서는 미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경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우리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희미래위원회 이태원 사무총장은 “기존에 경희가 추구하던 ‘인문학적 교양 교육의 강화’와 ‘학술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운영 미래대학’ 건설작업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부 행사는 미래위원회 위원들과 제 33회 피스바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좋은 대학 만들기’를 주제로 한 가을 대동제의 폐막식이 진행됐다. 축사를 통해 조인원 총장은 “경희라는 ‘지구 공동사회’를 지향하는 미래대학 건설을 위해 ▲교육의 수월성을 통해 전인적 인격체를 양성하는 경희 ▲학술의 탁월성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경희 ▲질병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경희 ▲인간의 존엄성 구현을 통해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경희를 구현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 △연



월 만원으로 학교사랑, 후배사랑 실천

천명이 사랑을 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명이 응원을 하면 최적의 학습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십만명이 힘을 합치면 단과대학과 기숙사,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경희를 발전시키는 ‘저력’입니다

칼럼

시공간 빅 데이터의 이해



황철수

지리학과 교수

'대학 특성화사업'에서 우리학교가 제출한 9개 사업단 중 2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단은 지리학과와 사학과의 '시공간 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사업', 국제학과와 정치외교학과의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학문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으로 각각 7억 원과 10억 원을 매년 최대 5년까지 지원받는다. 이에 우리신문은 첫 번째 순서로 황철수(지리학) 교수에게 '시공간 빅 데이터'에 대해 들어봤다.

연재순서

- 1회 : 시공간 빅 데이터의 이해
- 2회 : 시공간 융합트랙 교과과정
- 3회 : 학부생 진로개발

“

빅 데이터를 말할 때는 빅 데이터의 출현, 생산과 소비, 활용 등과 밀접히 연관을 맺고 있는 테크놀로지 역시 함께 빅 데이터 영역에 포함시킨다.

”

교양리포트⑫
[우리가 사는 세계]현대 문명의
난제·도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기라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필자의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근대성의 성취와 유산'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통해 각자 자신을 탐색하게 하고, 이 세계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생각해보게 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상'을 이해하기, 축적된 시·공간 데이터에서 출발

최근 높아지는 빅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비단 한 학문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학문 분야를 훔쓰는 태풍과도 같아 보인다. 토마스 쿤이 말한 "페러다임의 전환"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빅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 저장·관리·분석기법의 한계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 볼 수 있다.

빅 데이터(Big Data)는 기존 데이터에 비해 크기가 매우 방대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순환 속도가 빨라 기존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분석하기 어려운 정형 혹은 비정형 디지털 데이터를 일컫는다. 이런 빅 데이터의 특성을 흔히 4V(volume, velocity, variety, veracity)로 규정하고 「빅 데이터 생성→수집→저장→분석→표현」의 프로세스마다 각각의 세부 영역과 관련기술이 존재한다. 따라서 흔히 빅 데이터를 말할 때는 빅 데이터의 출현, 생산과 소비, 활용 등과 밀접히 연관을 맺고 있는 테크놀로지 역시 함께 빅 데이터 영역에 포함시킨다.

빅 데이터 시대의 출현과 학문적 대응

빅 데이터가 21세기 새로운 "페러다임의 전환"을 알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유사한 흐름이 감지된다. 즉 서양에서 르네상스와 근대 이후 인류 문명에 획을 긋는 자료 집성(集成)의 역사가 존재하고, 동양에서도 청나라의 고증학, 영·정조 시대 규장각으로 대표되는 학문과 문화 르네상스에서 그 전조를 찾을 수 있다.

21세기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는 획기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가장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발달, 스마트 기기의 확산, SNS의 활성화, 사물네트워크의 출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데이터의 생산 주체가 공적 혹은 조직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으로 확산되어 과거 경험할 수 없는 데이터의 흥수에 인류의 삶이 놓여지게 되었다. 여기에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관리·분석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역시 빅 데이터의 유용성과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 데이터의 생산 체계는 주로 정형화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표준적 자료를 공적 기관이나 민간 조직에서 담당하였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공간에서 발견되는 데이터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와 답변, SNS, 블로그, 게시판, 동영상, 음악, 사진 등 데이터의 형식과 크기를 특정할 수 없는 비정형 혹은 비구조적 데이터가 대부분을 이룬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인류의 삶이 옮겨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에 접어들고 있다.

빅 데이터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메타기술과 메타지식 역시 급부상하고 있다. 정보를 다루는 기술, 이른바 IT(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에서 이뤄낸 최근 10여 년간 발전은 정보 자체 및 정보를 다루는 지식 체계의 변화를 일으켰다. '기술적 정보' 혹은 '메타기술'이 미래 사회를 변혁하고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제 '방법에 대한 지식(knowledge-how)'이나 '대상에 대한 지식(knowledge-what)'이 아닌 수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메타지식, 즉 '지식에 대한 지식'

(knowledge-where) 체계가 중요한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시공간 빅 데이터란 무엇인가?

최근 생산되는 빅 데이터를 뜯어보면 시간과 공간 위치 태그라는 속성이 동시에 기록돼 저장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위한 공간 데이터 형태 정의, 공간 연산자, 공간 인덱스 등을 포함하는 기술과 함께 새로운 분석 방법 등이 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빅 데이터의 출현과 관련 연구는 '공간', '시간',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융합적인 연구의 도입과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 따라 시공간 빅 데이터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시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정형, 비정형 자료를 융합한 데이터로 시공간적으로 조회·분석·시각화해 과학적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적 체계"를 시공간 빅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현재 전세계 빅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빅 데이터의 시공간적 속성을 간파하고 일찍부터 빅 데이터의 컨테이너로써 '디지털 지도'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모든 정보와 연계시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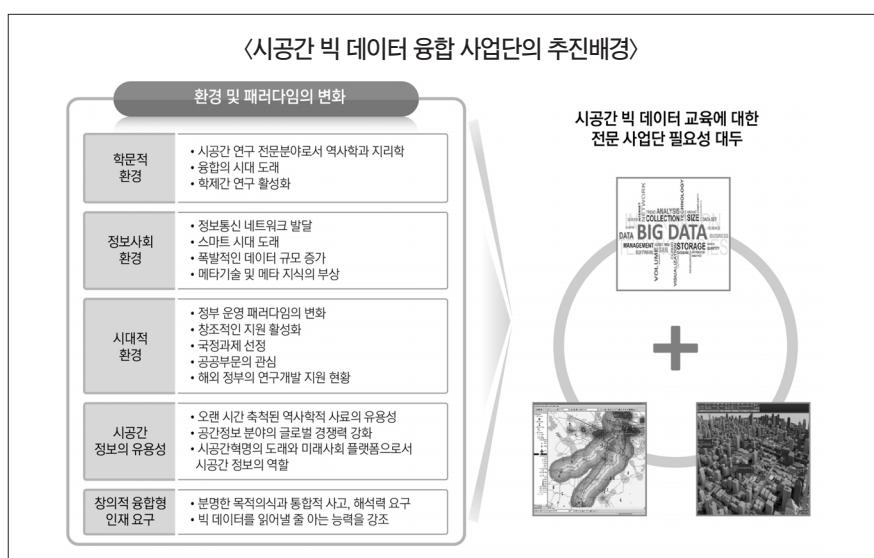
는 초국적 대규모 투자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리학과 사학의 연계 필연성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함께 흘러가며 그 변화 속에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발생한다.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를 다루는 역사와 지리는 학사(學史)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18세기 철학자 칸트는 "지리학과 역사학 사이의 차이점은, 단지 하나는 공간에 의한 고찰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에 의한 고찰일 뿐"이라 하였고, 19세기 철학자 헤겔은 "역사가 정신의 시간적 발전이라면, 자연은 이념의 공간적 발전"이라고 했다. 20세기 사회 전반적으로 계량화되고 과편화됨으로써 학문 세계에서도 세분화, 전문화의 길이 강조돼 역사와 지리는 독자적인 분야에 갇히게 됐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시·공간에서 끌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단위로, 21세기 들어 다시 융합의 시대가 도래하여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됐다.

빅 데이터를 둘러싼 지리학과 역사학의 접점은 여기서 발생한다. 시간과 공간이 함께 담긴 정보를 기반으로 같은 공간이라도 시간에 따른 다른 공간 이용의 궤적을 추적하고, 이로부터 개인이 사회와 갖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추론하며, 인간 삶의 질(Quality of Life) 문제를 제기한다. 이로써 기존의 귀납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추론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존 시간지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시간 축의 범위가 하루 내지 한 달 등 현재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통시적 관점으로부터 공간적 유사성과 특이성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는 시·공간 빅 데이터 연구는 선사 아래로 역사적 시간 흐름의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제안한다. 이에 따라 지리학과 역사학의 학제 간 융합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자신이 왜 스펙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지 근본 원인을 알 필요가 있다

요즘에는 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걸까?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세대라니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다.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서라는 설명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기업들은 해마다 일정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왜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는 걸까?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풀어야 할 숙제들로 가득하다. 인류 전체의 부는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밥을 짚거나 돈이 없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시대와도 비할 바 없는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자원고갈의 위협에 놓여 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시민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그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다. 이처럼 현재 우리 문명은 여러 가지 난제와 도전 앞에 놓여 있다.

'인간의 가치 탐색'과 함께 후마니타스 칼리지 필수 중핵교과인 '우리가 사는 세계' (이하 우사세)는 우리 사회가 당면해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보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과목이다.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면 먼저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배경이 된 사회 질서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우사세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우리 삶의 정치경제적 토대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어떤 생각에 기초하여 '발명'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되었는지, 그 안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이념과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지적 탐험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우사세가 제안하는 길은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여러 관념과 질서의 체계가 처음 등장한 근대 초기 유럽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근대 문명이 이루어한 대표

직에 충실한가?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우사세의 목표는 단지 세계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우사세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학생들 스스로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근대 문명은 그 이전 시대의 문제, 모순, 딜레마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태동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대 문명이 그 이전 세계가 갖고 있던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힌트를 얻고자 한다. 그래서 이 과목은 몇몇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단순한 '세계사' 수업이 아니다.

치열한 스펙 경쟁은 취업을 위한 당연한 절차일까? 대학생들은 자신이 왜 스펙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지 근본 원인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세상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진 가장 크고 직접적인 이유는 IMF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그 대신 비정규직이 늘어난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일까? 다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해법을 상상해볼 수는 없을까? 우리는 우사세를 통해서 이러한 물음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재순서
1회 : 근로계약서와 계약내용
유의사항
2회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3회 : 4대보험
4회 : 휴게시간 및 근무조각
5회 : '노동자'와 노동조합,
아르바이트

알바노동자 필수상식②

김재섭 알바노조 경희대 분회 분회장

#. 강동구 괴시방에서 일하는 김섭섭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시급은 5000원으로 계약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근무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고 10시간씩 이를이다. 섭섭 씨는 이렇게 4개월을 일했다.

총무로 P사 빵집에서 카운터 보는 일을 하는 김성실 씨는 면접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부실한 근로계약서기는 했지만 시급 5500원에, 근무시간은 주 5일 17시부터 23시까지 5시간씩이었다. 식대는 따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저녁 시간에 시간 조금 지난 빵들 먹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성실 씨는 이렇게 6개월 일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섭섭 씨와 성실 씨는 모두 법적인 근로자, 노동자다. 또한 허술하기는 했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기에 명백하게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섭섭 씨의 고용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하지만 섭섭 씨는 근로계약서에 시



최저임금에 유급주휴수당 포함시켜 OECD 통계 사실상 조작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금 5,000원으로 서명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 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자세히 나와 있으니 겁먹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이 근로계약서는 5,210 원으로 계약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에 일단 최저임금 위반만으로도 체불임금이 발생하는데 일주일에 이를이면 20시간, 4주면 80시간, 4달이면 320시간을 일한 셈이다. 지각과 결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320 곱하기 210 원인 67,200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 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섭섭 씨의 고용주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런 의무도 있으니 주변 사장님들에게는 미리미리 알려주자.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 바로 '주휴수당'이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유급으로 말이다. 현행법상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적용되며 참고하자.

다행으로 우리 섭섭 씨와 성실 씨는 모두 15시간 이상 일한다. 섭섭 씨의 경우 이를 만일하지만 근로시간이 20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자이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근로계약관계만 증명되면 적용되며 겁먹지 말자.

계산법은 간단하다. 주5일제라는 가정 하에 여러분의 일주일 근로시간을 5로 나누면 그것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다. 20시간 나누기 5는 4시간이기 때문에 섭섭 씨는 일주일에 4시간, 한 달에 16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4달 일하고(5,210원으로 계산한다.) 주

휴수당을 한 푼도 못 받았으니 체불 임금은 333,440원이다. 위의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금액까지 합하면 400,640원이다.

한편, 성실 씨의 고용주는 최저임

금 이상을 주었지만 성실 씨가 일을 그만들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5,5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성실 씨가 유리하다. 기준은 5,500원이 된다. 그러자 고용주는 "식대로 지급한 빵이 사실 임금이다"라며 주장하기 시작했다.

먼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통화(通貨)', 우리나라가 빵을 화폐로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고용주의 주장은 틀린 주장이니 당당하게 이야기해주자.

그럼 성실씨의 주휴수당은 얼마 일까? 하루에 5시간씩 5일 일했으니 5시간 곱하기 4주, 20시간 곱하기 5는 4시간이기 때문에 섭섭 씨는 일주일에 4시간, 한 달에 16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4달 일하고(5,210원으로 계산한다.) 주

휴수당을 한 푼도 못 받았으니 체불 임금은 333,440원이다. 위의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금액까지 합하면 400,640원이다.

한편, 성실 씨의 고용주는 최저임

참여마당

이창엽
스페인어학과 2014



여러분은 왜 고생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이른바 '꿀강의'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꿀강의의 기준은 대개 출석이 '널널'하고, 과제가 많지 않으며 학점을 잘 부여해주는 것이다. 결국 부담은 적고, 고생하기는 싫지만 좋은 성과를 원하는 '욕심'인 셈이다.

이런 추세의 바탕은 일차적으로 사회에서 대학생에게 부여하는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치열한 입시경쟁을 거쳤지만, 아직도 취업부터 결혼, 육아, 내 집 마련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오롯이 감내하기에는 과중하다.

그렇다고 '사회' 탓만 할 수 없다. SNS에서 유통되는 '나레기',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와 같은 블랙유머에서 미루어볼 수 있듯이, 의욕과 열정도 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꿀강의를 구해 좋은 학점을 얻는다면, 취업을 위한 준비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정작 '배움'은 놓치게 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표현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내면이 성장한다는 부분만큼은 동의한다.

우리학교 안에서 예를 들어보자.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립한 후마니타스 칼리지에는 '중핵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실존적 지식을 기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문학적 소양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등을 생각하기는 커녕, 어렵고 귀찮은 것으로만 간주한다.

심지어 수업을 듣는 과정은 결과 중심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조별과제'에 몰려들고, 그 자체는 경시한다. 결국 자기계발은 없고, 자기개발만 넘치는 상황이 도래한다. 자신의 가치관을 살찌우는 스승 대신 성적을 잘 주는 교육서비스업자를 찾고,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바람 대신 편리를 쫓는 욕심은 커진다. '진리를 논한다'는 대학과 대학생은 사라지고 취업준비생만 남는다.

모든 학생을 비하하고자 함은 아니다. 본받고 싶을 정도로 '열심'인 학생도 상당수다. 다만 앞서 설명한 악순환의 고리에 얹매인 학생 역시 적지 않고 결국 일자 피해자는 자신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 사회에 문제제기하는 것만큼이나, 스스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표현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내면이 성장한다는 부분만큼은 동의한다. 지금 우리의 내면은 얼마나 성장해있는가. 생각을 계울리하고 싶은, 그래서 스스로를 비하하며 풍자하는 그 마음이 튼튼하다고 말하길 어렵다. 그러니 어려움을 '피하려는 생각'이 전에 '해결해보려는' 열정을 품어보자. 철은 담금질할 수록 단단해지고, 우린 아직 '철도 씹어 먹는' 청춘이니까.

▶1면에서 이어짐

이 동안 루소 편에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는 태협이란 일체 없었다. 이런 루소의 모습에 혁명기의 프랑스인들은 열광하였다.

자연인 에밀은 어떤 인간성을 갖고 있는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인간 차이가 아니라, 만인 평등성을 믿는다. 화려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데 관심이 없다. 자기애를 이기심으로 타락시키지 않고 인류애로 발달시킨다. 괴로운 처지에 놓인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느낀다. 죽음을 피해 오래 살기가 아니라 짧더라도 보람있게 살다 죽기를 택한다. 권위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행동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경쟁자로 삼아 진보한다. 도덕적 의무 자체에 대해 즐거움을 느낀다.

에밀의 이런 인간 특성들은 루소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류의 사회제도, 교육방침, 기성관습에 대한 거대한 도전임이 간파되는가?



루소의 모습에 혁명기 프랑스인들은 열광했다

루소의 '자연인' 교육론은 루소 당시까지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시킨 사상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의 하나였다.

세월호 사건으로 한국사회가 진동했던 지난 학기 모대학교 교양강의에서 필자는 120명 가량의 수강생들에게 물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 남보다 더 잘 살아야한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 손들어 보시오.” 대다수가 손을 들었다. 필자는 자신과 수강자들에게 물었다.“왜 손을 들었는가요?”

“3세기 전 ‘인간’ 에밀이 이원적 도식을 가지고 현대인들을 압박한다. 나와 너는 정상인이나 불구자냐? 나와 너는 인간이나 비인간이냐?

이어서 필자가 말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 남보다 더 잘 살아야한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 손들어 보시오.” 대다수가 손을 들었다. 필자는 자신과 수강자들에게 물었다.“왜 손을 들었는가요?”

“3세기 전 ‘인간’ 에밀이 이원적 도식을 가지고 현대인들을 압박한다. 나와 너는 정상인이나 불구자냐? 나와 너는 인간이나 비인간이냐?”

2014년 고교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
행복!
KHU심리프로젝트
행복!
방법을 찾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특강을 출연합니다.

- 대학생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알고 싶은 사람
- 내 삶을 좀 더 다양한 각도로 가꾸어 나가고 싶은 사람

주요 내용
-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과학적 심리실험 소개
- 행복에 대한 다양한 관점 찾기
- 지금 내 삶에서 행복 할 수 있는 방법 알기
- 대학생생활에서 행복방법 적용해보기

2014. 10. 02

- 일시 | 2014. 10. 2(목) 12:00~14:00
- 장소 | 멀티미디어관 411호
- 문의 | 학생생활상담팀 연락처(031-201-2806), 메일(counsel@khu.ac.kr)
- 주최 | 취업준비지원처 학생생활상담팀

인터뷰



“총여 존속, 합리적 근거 없다”

양성평등연대 김동근 대표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Q. 양성평등연대는 어떤 단체인가?

이 땅의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뛰고 있는 단체다. 대한민국에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단체가 600여 개 정도 있는데, 모두가 ‘공산주의적 폐미니즘’에 기반을 둔 가짜 단체이며 진정한 평등을 위한 단체는 우리뿐이다.

Q. 현재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총여학생회·생리공결제도 폐지다.

Q. 총여학생회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총여는 불평등이 있어야 존재이유가 생긴다. 지금 학생회는 남성만을 위한 학생회가 아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학생회가 있음에도 여성을 위한 학생회가 있는 것은 적절한가? 예산도 남녀 모두에게 걷는다. 성별죄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하

나의 학생회를 뒤집어 만큼 성별죄가 빈번한가? 경찰과 검찰은 왜 존재하는가. 성별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총여 같은 단체의 존속이유가 생긴다.

Q. 총여학생회가 사후범죄 해결이 아니라

성교육을 비롯해, 차별문제 등의 다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을 왜 총여가 하나 학생회에서 하든지 성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부서가 둘 이면 예산이 두 배로 든다. 쓸 데 없는 부서는 통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가 독립된 여성들로부터 부처가 필요 한가? 성평등은 다 이루어져서 이들은 할 일이 없다.

Q. 기획의 평등이 허용됐다고 보더라도, 여전히 유리천장과 같은 인식의 불평등은 존재한다.

여자가 자초한 일이다. 여자가 의지가 없다. 요즘 전국의 학생들이 모이는 학술회에 자주 참여하는데 여성 참가자는 단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아래 놓고 여성할당제를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선천적인 능력은 남녀가 똑같다.

Q.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문제도 있지 않나?

양성평등연대는 출산지원에 대해 찬성 한다. 출산으로 인한 유리천장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출산을 두고 남성우월주의나 남성 중심적 조직구조 탓을 하는데 그 사회인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여자가 더 잘한다. 모유 등의 생물학적인 이유도 그렇고,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다. 대한민국 법에서도 이혼할 때 여성이 아이를 더 잘 키운다고 명시해 놓았다.

Q. 여성이 애를 키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구조가 성불평등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 말이다. 예를 들어 진정한 폐미니스트라면, 여자가 군대 못가는 것부터 기분 나빠해야 한다. 양육도, 여성전용주차장도 굉장히 기분 나빠야 한다. 지금 폐미니스트들은 완전 모순돼있다. “장교는 보내 달라! 단 사병은 못 간다!”, “결혼비용 남자가 더 내라 전통 아니나!” 등 이중잣대 투성이다. 권리와 의무는 함께 오는 것이다.

Q. 생리공결제는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했다. 이런 차이에 따른 지원을 반대하는가?

맞다. 원칙적으로 자연적인 것에 대한 지원은 반대한다. 다만 장애인만큼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한 지원은 인정한다. 절충적 입장이다. 생리가 그만큼 힘들다? 장애등급 받고 와라.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계획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학생회에 서명을 전달해 압력을 가하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할 계획이다.



“총여, 여성에 대한 배려 아닌 ‘인식개선’에 있어”

국제캠퍼스 총여학생회 남슬기 회장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Q. 양성평등연대는 어떤 단체인가?

이 땅의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뛰고 있는 단체다. 대한민국에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단체가 600여 개 정도 있는데, 모두가 ‘공산주의적 폐미니즘’에 기반을 둔 가짜 단체이며 진정한 평등을 위한 단체는 우리뿐이다.

Q. 현재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총여학생회·생리공결제도 폐지다.

Q. 총여학생회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총여는 불평등이 있어야 존재이유가 생긴다. 지금 학생회는 남성만을 위한 학생회가 아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학생회가 있음에도 여성을 위한 학생회가 있는 것은 적절한가? 예산도 남녀 모두에게 걷는다. 성별죄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하

나의 학생회를 뒤집어 만큼 성별죄가 빈번한가? 경찰과 검찰은 왜 존재하는가. 성별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총여 같은 단체의 존속이유가 생긴다.

Q. 총여학생회가 사후범죄 해결이 아니라

성교육을 비롯해, 차별문제 등의 다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여자가 자초한 일이다. 여자가 의지가 없다. 요즘 전국의 학생들이 모이는 학술회에 자주 참여하는데 여성 참가자는 단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아래 놓고 여성할당제를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선천적인 능력은 남녀가 똑같다.

Q.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문제도 있지 않나?

양성평등연대는 출산지원에 대해 찬성 한다. 출산으로 인한 유리천장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출산을 두고 남성우월주의나 남성 중심적 조직구조 탓을 하는데 그 사회인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여자가 더 잘한다. 모유 등의 생물학적인 이유도 그렇고,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다. 대한민국 법에서도 이혼할 때 여성이 아이를 더 잘 키운다고 명시해 놓았다.

Q. 여성이 애를 키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구조가 성불평등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 말이다. 예를 들어 진정한 폐미니스트라면, 여자가 군대 못가는 것부터 기분 나빠야 한다. 양육도, 여성전용주차장도 굉장히 기분 나빠야 한다. 지금 폐미니스트들은 완전 모순돼있다. “장교는 보내 달라! 단 사병은 못 간다!”, “결혼비용 남자가 더 내라 전통 아니나!” 등 이중잣대 투성이다. 권리와 의무는 함께 오는 것이다.

Q. 생리공결제는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했다. 이런 차이에 따른 지원을 반대하는가?

맞다. 원칙적으로 자연적인 것에 대한 지원은 반대한다. 다만 장애인만큼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한 지원은 인정한다. 절충적 입장이다. 생리가 그만큼 힘들다? 장애등급 받고 와라.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계획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학생회에 서명을 전달해 압력을 가하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Q. 총여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는다. 총여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인가?

성차가 비슷해진 상황에서 완벽한 성평 등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남성에게 여성에 대한 배려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스스로 변화함과 동시에 남녀 모두의 인식 변화가 더해져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인식변화부터 성차별 사회문화 개선까지가 모두 총여의 역할이다.

Q. 총여가 여성에 대한 ‘배려’ 만을 강조해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있다.

건전한 술 문화 캠페인, 성폭력대처 스티커, 젠더를 주제로 한 인문학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총여의 활동이 여성에 대한 배려를 위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녀 간의 공감과 이해를 통해 평등을 이루기 위해 인식개선의 활동을 주로 해왔다.

Q. 총여는 모든 학생의 자치회비를 분배받는다. 하지만 활동이 여학생의 복지에 집중되고, 남학생은 투표권도 갖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총여의 투표권이 여학생에게만 주어지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할 주체가 여학생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국민들, 그 중에서도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그래도 정책을 결정할 때는 외국인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운영 과정에서 집행부는 남녀가 모두 함께하고 있다.

Q. 총여에서 진행하는 여타의 사업들을 총학에서 진행한다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약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실현’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총여학생회

총여는 이를으로 한 학기동안 해왔던 활동은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총여가 추구하는 올바른 성평등은 남성이 누리고 있는 권리들은 보장받되,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온전한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앞으로도 여성의 복지가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총여를 위해 노력하겠다.

는 양성의 ‘공감과 공존’을 위해 존재한다. 총여의 활동은 단순한 ‘복지’의 활동이 아니라 인식을 바꾸기 위한 사업이다. 인식을 바꾸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의식이 뚜렷한 대표자와 집행부가 필요하다.

Q. 생리공결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리공결제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생리통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생리통은 여타의 복지와는 절실히 차별화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생리통은 여성에게만 주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성에게도 생리통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생리통은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Q. 기획의 평등이 허용됐다고 보더라도, 여전히 유리천장과 같은 인식의 불평등은 존재한다.

여성이 애를 키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구조가 성불평등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의 계획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학생회에 서명을 전달해 압력을 가하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할 계획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계획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학생회에 서명을 전달해 압력을 가하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할 계획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계획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학생회에 서명을 전달해 압력을 가하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할 계획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계획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학생회에 서명을 전달해 압력을 가하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Q. 총여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는다. 총여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인가?

성차가 비슷해진 상황에서 완벽한 성평 등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남성에게 여성에 대한 배려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스스로 변화함과 동시에 남녀 모두의 인식 변화가 더해져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인식변화부터 성차별 사회문화 개선까지가 모두 총여의 역할이다.

Q. 총여가 여성에 대한 ‘배려’ 만을 강조해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있다.

건전한 술 문화 캠페인, 성폭력대처 스티커, 젠더를 주제로 한 인문학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총여의 활동이 여성에 대한 배려를 위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녀 간의 공감과 이해를 통해 평등을 이루기 위해 인식개선의 활동을 주로 해왔다.

Q. 총여에서 진행하는 여타의 사업들을 총학에서 진행한다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약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총여는 이를으로 한 학기동안 해왔던 활동은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총여가 추구하는 올바른 성평등은 남성이 누리고 있는 권리들은 보장받되,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온전한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앞으로도 여성의 복지가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총여를 위해 노력하겠다.

는 양성의 ‘공감과 공존’을 위해 존재한다. 총여의 활동은 단순한 ‘복지’의 활동이 아니라 인식을 바꾸기 위한 사업이다. 인식을 바꾸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의식이 뚜렷한 대표자와 집행부가 필요하다.

Q. 생리공결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리공결제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생리통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예전에는 생리통은 여성에게만 주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성에게도 생리통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생리통은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Q. 기획의 평등이 허용됐다고 보더라도, 여전히 유리천장과 같은 인식의 불평등은 존재한다.

여성이 애를 키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구조가 성불평등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의 계획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학생회에 서명을 전달해 압력을 가하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할 계획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계획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학생회에 서명을 전달해 압력을 가하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할 계획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계획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학생회에 서명을 전달해 압력을 가하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할 계획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계획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학생회에 서명을 전달해 압력을 가하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Q. 총여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는다. 총여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인가?

성차가 비슷해진 상황에서 완벽한 성평 등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남성에게 여성에 대한 배려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스스로 변화함과 동시에 남녀 모두의 인식 변화가 더해져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인식변화부터 성차별 사회문화 개선까지가 모두 총여의 역할이다.

Q. 총여가 여성에 대한 ‘배려’ 만을 강조해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있다.

건전한 술 문화 캠페인, 성폭력대처 스티커, 젠더를 주제로 한 인문학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총여의 활동이 여성에 대한 배려를 위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녀 간의 공감과 이해를 통해 평등을 이루기 위해 인식개선의 활동을 주로 해왔다.

Q. 총여에서 진행하는 여타의 사업들을 총학에서 진행한다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약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총여는 이를으로 한 학기동안 해왔던 활동은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총여가 추구하는 올바른 성평등은 남성이 누리고 있는 권리들은 보장받되,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온전한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앞으로도 여성의 복지가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총여를 위해 노력하겠다.

는 양성의 ‘공감과 공존’을 위해 존재한다. 총여의 활동은